

부산 정밀화학 공장 “화재”

7월31일 오전 0시31분 발생 ... 재산피해 2500만원

7월31일 오전 0시31분께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정밀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안기업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

보안기업 직원은 “2-3차례 큰 폭발음이 들려 현장에 가보니 공장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”고 밝혔다.

화재로 공장의 석유화학제품과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어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.

경찰은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힐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7/31>